

## ■ 2026년도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 회의일시

- 1차 서류 심의 : 2025년 11월 19일(수) 15:00~17:30

- 2차 인터뷰 심의\* : 2025년 11월 26일(수) 9:30~14:30

\*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_다년)에 한하여 2차 인터뷰 심의 진행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태환, 김양근, 김효영, 백기영, 신예슬, 신지나, 이기인

2026년도 국제교류 공모사업 중,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사업과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사업은 장르별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장르통합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사업 49건 그리고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의 단년과 다년사업 9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다년 사업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사업은 국제 기획 및 매개 역량 강화를 위한 매개자를 지원하며, 새로운 국제적 담론 발굴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이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해당 유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 기관과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작업을 위한 단순 리서치나 교류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심의회의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기보다는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주제 설정이나 담론의 참신성과 실험성이 사업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지원 규모 속에서도 국제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자부담 계획을 마련한 경우,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자가 이러한 부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교류사업 수행 기관 간의 역할 재편에 따라 변화한 국제사업 수행 구조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주체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들 역시 지원

신청 이전에 공모사업 설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지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적은 선정 건수와 제한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전 장르에 걸쳐 국제교류를 위한 시도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도 국제교류 사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예산 규모가 확충되어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